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도자료 보건복지 인재양성의 성장파트너

보도시점 2026. 10. 29.(목) 배포 2026. 10. 29.(목) 08:00

한국보건복지인재원, 현장 맞춤형 승급교육 성료, '요양보호사 승급제' 안착 이끈다

- '26년 제도 확대에 발맞춰 노인요양시설 및 주·야간보호기관 맞춤형 교육 전개 -

□ 한국보건복지인재원(원장 은민수, 이하 인재원)은 현장 중심의 전문 역량을 갖춘 선임요양보호사 2,100여 명을 배출하며, 올해 '요양보호사 승급제'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끌었다고 밝혔다.

□ '요양보호사 승급교육'은 장기요양 현장에서 60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의 직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강화하고, 돌봄 현장을 이끄는 핵심 리더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교육 과정이다.

□ 2026년 7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 적용 대상이 중소규모 요양시설과 주·야간보호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재원은 각 기관의 현장 특성과 요구를 깊이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.

□ 특히 올해 승급교육은 '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' 비중을 늘리고 역할극 실습을 도입해 대상자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, 노인과 종사자 인권을 아우르는 돌봄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. 아울러 ▲승급제도 이해 ▲급여제공절차와 활용 ▲응급상황 대처 ▲리더십 개발 등 선임요양보호사가 현장의 핵심인력으로 자리 잡는 데 필수적인 현장 밀착형 실무 커리큘럼을 충실히 제공했다.

□ 교육을 수료한 한 현장 종사자는 “승급 교육을 통해 선임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”며, “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스킬을 바탕으로 더 높은 돌봄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은민수 원장은 “올해는 승급제도 확대라는 정책적 변화에 발맞춰, 더 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현장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체계를 다지는 데 주력했다”며, “인재원은 앞으로도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혁신을 이끄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

▲사진: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관 전경 출처: 한국보건복지인재원

담당 부서	장기요양사업팀	책임자	팀 장	신문철	(043-904-6371)
		담당자	대 리	이샛별	(043-904-6372)
			주 임	경지현	(043-904-637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